

1장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반야심경의 지혜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密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

“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통과 액운을 넘어서게 된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6가지 길

- 인생의 8가지 고통 : 生老病死의 苦, 愛別離苦, 怨憎會苦, 求不得苦, 五蘊盛苦(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色, 受, 想, 行, 識의 다섯가지 요소가 너무 강한 고통)
- 진정한 해탈은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煩惱가 곧菩提라고 했다.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관찰하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 해탈한다는 것이다.

인생을 수행의 과정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정신적인 깨달음이자 사물 본연에 대한 비범한 깨달음이다. 바라밀다는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묘한 반야의 지혜로 생사를 초월해 진실한 공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반야는 體이고, 바라밀다는 用이다.